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7년 9월 10일(주일) 제1163호

나라와 민족을 위한 40일 릴레이 금식기도

9월 11일~10월 21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자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도운동

내일(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40일 릴레이 금식기도'를 시작한다. 따로 시간이나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중보하는 기도운동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40일 릴레이 금식기도에 참여하는 방법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 메인 배너를 클릭해서 금식기도 일정을 정하거나 문자메시지(1666-2549)로 이름, 이메일주소, 공동체명, 금식기도 일정을 보내면 된다. 일주일 단위로 기도제목이 제시된 책자도 발행된다.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과 미사일 발사 실험 여파로 한반도 정세가 어느 때 보다 혼란스러운 시점에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40일 릴레이 금식기도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민

들은 또다시 한반도에서 끔찍한 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노출되어 있고,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해당사국들은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못해 마찰하고 있는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뿐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극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가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와 간구로 나아가야 합니다. 40일 동안의 릴레이 금식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라와 민족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같은 마음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서명 23,780명 동참

온라인으로 서명운동 계속 참여 가능

지난 주일(3일)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에서 실시한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서명운동에 성도 23,780명이 동참했다. 온라인으로 적극 참여했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이 주도하고 있는 서명

운동에는 온라인으로 계속 참여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hisland.org)에서 '일반인 온라인 서명'을 선택하고 이름, 주소(동까지), 휴대폰 번호 등을 기입하면 된다. 집계된 서명은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장, 개헌특위

위원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최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헌법의 혼인조항에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꿔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 시키는 개헌을 하려고 한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야 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9월 비전헌금

군포하나로청소년쉼터 재건축사업 후원

오늘(10일) 봉헌하는 9월 비전헌금은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기관인 군포하나로청소년쉼터 재건축사업을 후원하는데 사용된다.

군포하나로청소년쉼터 건물노후로 누수와 누전이 계속 발생해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임시 센터에서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1990년 개원한 군포하나로청소년쉼터는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문의: 031-399-7997

CGNTV 정기후원 약정

9월 17일, 5만 명 달성 목표

다음 주일(9월 17일)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가 실시된다. 이번 정기후원 약정행사는 '한 영혼을 섬기는 CGNTV의 5만 후원자가 되어주세요'가 주제다.

CGNTV는 이번 정기후원 약정행사에서 후원자 5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CGNTV 후원자 한 명이 신규 후원자 한 명을 추천하면 달성할 수 있다.

CGNTV 홈페이지에서도 후원행사에 동참할 수 있다. 이미 후원을 하고 있는 성도는 증액후원을 할 수 있다. 이날 CGNTV 임직원들은 안내데스크를 설치하고 드림통(저금통)을 수거 및 배포할 예정이다.

CGNTV는 후원자 2만 8천여 명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간 5,716편의 기독교 문화콘텐츠를 제작하고 있고, 전 세계 87개국에 10,978개의 안테나를 설치했다.

/ 김영선 기자

온누리신문 취재기자 모집

조건: 문서사역에 헌신한 분,

관련 분야 경력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명기사

제출: onnuriweekly@gmail.com

문의: 02-3215-3196

■ 특집 9월 17일 CGNTV 정기후원의 날 1. 한 영혼을 섬기는 CGNTV 2. 5만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세상에 둘도 없는 방송 CGNTV

한 영혼을 위하여 더 멀리, 더 가까이

세상에 이런 방송은 없다.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 가는 CGNTV를 두고 하는 말이다. CGNTV는 멀게는 해외 선교지부터 가깝게는 동네 교회까지 찾아간다. 오직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간다. 영적으로 고갈된 선교사들에게는 영의 양식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달콤한 하나님의 음성을, 사역 단체에게는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선교지에 설치된 안테나를 통해서 지구촌 곳곳에 복음이 흘러간다.

CGNTV는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87개국에 안테나 10,978개를 달았다. 그 안테나를 통해서 지구촌 곳곳에 복음이 흘러가고 있다. 난생처음 복음을 들은 이들에게는 생명을, 영적으로 고갈되고 소진된 선교사들에게는 회복

을 선물하고 있다. 오죽하면 해외 오지 선교사들이 “CGNTV 보다 귀하고 든든한 동역자가 없다”고 할까.

러시아에서 고려인들을 섬기고 있는 E선교사에게도 CGNTV만한 동역자가 없다.

“선교지에서는 말씀 듣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고갈되기도 하고 마음의 병이 생기기도 해요. 그만큼 고달롭습니다. 그런 선교사들에게 CGNTV는 희망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되찾아 주는 영적 피로회복제입니다.”

라오스에서 사역하고 있는 K선교사에게 CGNTV는 생명을 공급받는 통로다. 사역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CGNTV만 틀면 찬양과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에게 CGNTV는 생명을 공급받는 놀라운 통로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CGNTV

CGNTV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은 해외 선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섬기고 있는 안산실로암교회도 마찬가지다. 안산실로암교회에서는 매월 둘째 주일에 특별한 예배를 드린다. 성도들이 웅기종기모여 TV를 트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다. 그 시각 TV에서는 CGNTV의 간판 프로그램인 ‘비타민’과 ‘하늘빛향기’가 전파를 탄다. 안산실로암교회 성도들은 귀를 쫓긋 세우고 CGNTV를 듣는다. 사실 시각장애인들은 좀처럼 TV 프로그램을 듣지 않는데 CGNTV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들은 그렇게 좋아한다고 한다. 좀처럼 들을 수 없는 기독교인 명사들의 신앙이야기를 듣는 것이 유익하고 재미있기 때문이란단. 웬만한 설교보다 좋은 영적 양식이다.

안산실로암교회는 3년째 CGNTV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아무래도 활동이 한정된 시각장애인 성도들이 기독교 세미나나 강의를 들으러 가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풍성한 영적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CGNTV가 더 귀하다. 시각장애인 임영길 집사는 “CGNTV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삶의 가치,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배우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다”고 고백했다.

안산실로암교회 안현자 목사에게도 CGNTV는 보물이다. 안 목사에게 CGNTV는 너무 좋은 선생님이다. 주중에 ‘안산시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서 성경공부를 하거나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하는 일이 쉽지 않다. 그래서 안 목사는 눈만 뜨면 CGNTV를 틀어놓는다. CGNTV의 각종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되기 때문이다.

“늘 약자들에게 베풀어주는 CGNTV를 위해서 안산실로암교회 성도들도 이번 정기후원 약정행사에도 동참하기로 했어요.”

미자립교회 청소년들을 섬기고 있는 사역단체 ‘뉴비전코리아’의 올해 여름캠프에 평소보다 두 배가 넘는 인원이 참석했다. 보통 150명이 참석하는데 이번에는 320명이나 참석했다. CGNTV KNOCK팀에게 전수받은 노하우로 만든 홍보동영상 덕분이다.

뉴비전코리아는 7년 된 청소년사역 단체다. 대전지역의 4개 교회(빛나리교회, 임마누엘축복교회, 대은교회, 스토리교회) 목회자와 50여명의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캠프를 진행하기 힘든 미자립교회를 대신해 여름과 겨울에 캠프를 열어주는 사역을 하고 있다. 열정은 대단한데 열정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 있었다. 광고였다. 그 부족한 부분을 CGNTV KNOCK팀이 채워줬다.

“광고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CGNTV KNOCK팀에게 전수받은 노하우 덕분에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재미가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고 자연스럽게 캠프 홍보도 할 수 있었어요.”

사역칼럼



함태경 경영본부장
(CGNTV경영본부)

CGNTV는 ‘한 영혼’을 위해 시작된 방송이다. 전 세계의 갈급한 ‘한 영혼’을 위해 24시간 365일 쉬 없이 영적 콘텐츠를 송출하고 있다. CGNTV를 통한 미디어선교는 이제 선교사들 뿐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한 다음 세대, 지역사회, 한국 교회에 희망이 되고 있다.

CGNTV가 모바일 전용으로 만든 ‘KNOCK’ 콘텐츠는 미니휴먼다큐, 미니시트콤 등의 다양한 장르로 젊은 세대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

다. 지난 7월 업로드된 미니휴먼다큐 ‘현목이의 미니멀라이프’는 누적조회수 200만회를 기록하며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함께 동역하고자 하는 이들의 손길이 이어졌다. 노크의 다양한 콘텐츠들은 SNS상에서 널리 공유되며 비기독교인들에게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교회에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에 중요한 선교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 것이다.

CGNTV의 첫 다류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이하 <서서평>)는 관객에게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삶의 의미와 현실적 가능성을 제시했다. 누적관객 수 12만 2,351명(9월 7일 기준)을 기록한 <서서평>은 올해 개봉한 기독교 다류영화 1위를 기록하며 큰 울림을 선사했다. CGNTV는 미디어선교 노하우를 한국 교회

CGNTV가 섬기는 한 영혼

에 나누고자 지난해부터 한국 교회 나눔 프로젝트 일환으로 미디어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미디어 아카데미에 참여한 한 신학생은 “아직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한 선교 방법을 모르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알리고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CGNTV의 국내외 미디어 아카데미는 한 영혼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플랫폼과 그 방법을 전하며 새 시대에 맞는 미디어 사역자들을 세워나가는 모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향교회 섬김’은 CGNTV가 한국 교회를 섬기는 또 다른 방법이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 교회를 찾아가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지난 8월 50여 명의

CGNTV 직원들이 전북 진안 배넉실교회에서 마을회관 보수, 해바라기 밭 가꾸기, 마을잔치 등을 진행했다.

CGNTV의 카메라는 언제나 한 영혼을 위한 마음을 품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다. 경북 구미에서 이주민 사역을 하는 권준은 목사, 박정림 사모의 모습을 담은 미니휴먼다큐 ‘구미 가족 사람’을 선보여 이주민을 향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다. 오는 10월에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독일 통일 여정을 천착하고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다큐멘터리 <춧불과 십자가, 담장을 허물다>(가제)를 방송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CGNTV는 복음이 필요한 곳,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더 멀리, 더 가까이 다가가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우리나라의 안타깝고 부끄러운 현실 중 하나는 자살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OECD 국가 가운데 계속해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소외감을 깊이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그들에게 ‘너희들이 엘리트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메시지만 계속 보낸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주민들도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사회가 그들에게 ‘우리는 당신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면 그들 또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인 책임은 사회적 소외감을 막을 뿐만 아니라 소외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소외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어느 공동체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따뜻한 사랑, 포용,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또 다른 차원의 소외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느낄 수 있는 사회적 소외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세상의 원리와 습관을 좇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느낄 수 있는 소외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길을 따르라고 요구합니다. 압력을 가합니다. 때로는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습니다. 성경의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소외감을 많이 두려워하고, 소외감을 회피하려고 한다면 세상 속에 끌려가고 휩쓸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편지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에 토로스 산맥 지역 일대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AD 60년 중후반 경에 쓴 편지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

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주변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만일 신앙이 나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주고, 나에게 사회적인 소외감을 가져다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서구 사회를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라고 합니다. 이미 교회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는 시대를 넘어섰습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밀려나고 배척받는 시대입니다. 과거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지역사회의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문화제나 폐허가 되어 버렸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대답이 바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감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그분의 피뽀름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1~2절).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 모두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단지 여행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방랑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방랑과 여행은 차이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으면 여행이고, 없으면 방랑입니다. 여행과 순례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행은 자기가 결정하고 원하는 대로 떠나는 것이고, 순례는 내가 목적과 경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가는 여행이 바로 순례입니다. 여기서 나그네라는 표현은 단순한 여행객이나 방랑객이 아니라 순례자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세상 그리고 소망

나그네를 순례자로 바뀌게 한 이유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뽀름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때 순례자로 살아가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진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과

살아있는 소망

베드로전서 1:1~12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고, 근심이 있어도 큰 기쁨으로 살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고 사랑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거의 2000년 전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뿌려집니다. 피뽀름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삶을 인도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뽀름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순간 이 세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뽀름으로 거듭 태어나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으로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뽀름으로 거듭난 영원한 생명과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듯이 우리 안에는 거듭난 새 생명과 세상이 존재합니다. 거듭난 새 생명이 존재하는 세상은 영원한 생명의 세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듭난 생명이 이 땅에 머무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그것을 ‘산 소망’이라고 합니다.

거듭난 새 생명과 살아있는 소망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순례로 변화시키는 것은 소망입니다. 거듭난 새 생명이 우리에게 가져온 것은 소망입니다. 일반적인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막연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기대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생명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살아 움직이는, 역동하는, 생동하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왜 이 소망을 살아있다고 표현했을까요. 직역하면 이 소망은 꿈틀거리고 움직이며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소망은 너무나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확실히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앞당겨져서 현재의 삶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모른 채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히 일어날 것을 지금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새 생명이 있다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있는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변화시키고 이 땅에서 힘 있게 살아간 사람들의 공통점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발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살아있는 소망은 어떤 모

습입니까.

첫째,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유업이 없을지라도 하늘에 쌓여 있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 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4-5절).

살아있는 소망을 따라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장차 얻을 구원을 바라보고 하늘의 유업을 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렵더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유업이 없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과거 시제만 있으면 위험합니다. 세상의 모든 시험에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 그리고 장차 받을 구원을 바라보는 살아있는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힘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받을 구원을 바라보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받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장차 받을 구원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유업을 소망하는 것이 아닌 하늘의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날마다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그네로, 순례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둘째, 이 세상에서 온갖 시험을 당해 근심할지라도 도리어 크게 기뻐합니다.

세상에는 믿음을 흔들고 근심하게 하는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시험을 통과하면 또 다른 시험이 옵니다.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평생 동안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근심이 없기를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시험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쉽게 교만해지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에 만족하고, 이 땅에 만족하며 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은 믿음을 연단시키고, 정결케 하고, 진정한 믿음인지를 확실하게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시험 속에서 잠시 근심할지라도 오히려 그 근심이 큰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믿음 생활에서 큰 기쁨을 겪는 것을 뒤집어 보면 모두 시험거리였습니다. 근심거리가 있었지만 믿음 안에서 그것을 재해석하고, 믿음

기 획

이단피해를 예방하자

진화하는 이단 이렇게 대처하라!

이단들 포교방식 변화 ... 문화로 접근해서 다음 세대 노린다
교회와 가정의 적극적 대처와 예방교육이 몇 안 되는 예방접종

요즘 이단(異端)들이 스마트해지고 있다. 포교방식부터 달라졌다. 문화를 활용해서 다음 세대를 노리는 포교에 집중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식은 이렇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수준 높은 동영상과 음악을 게시한 다음 사람들의 눈과 귀, 마음을 미혹한다. 이미지 세탁에도 힘쓰고 있고, 한국을 넘어 세계무대에서도 교세확장을 노리고 있다.

이단들의 무차별한 포교활동에 가정과 교회, 사회가 흔들리는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미래의 주인공인 다음 세대들이 타깃이라는 점이다. 요즘 이단들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단전문가 탁지원 소장의 자문을 받았고, <현대종교>, <목회와 신학>, <이단>에서 저자의 허락을 받고 내용 일부를 발췌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갈 1:7)며 거짓 선지자와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경고했다(갈 1:8-9).

교회 역사에 이단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지난 2천년 동안 이단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늘 존재해왔다. 이단들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포교방식을 업그레이드하면서 교묘하게 거짓교리를 퍼트리고 있다. 요즘은 교회보다 자신들이 더 윤리적이고 순수하다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세심한 관심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요즘 이단들의 4대 트렌드

1. 세대교체

주요 이단들의 세대교체가 진행 중이다. 세대교체를 이룬 대표적인 이단은 하나님의교회다. ‘아버지 하나님 안상홍에서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로의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종교사회학적으로는 신종 종교로의 정착이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교회에 대한 한국 교회의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하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과 신천지 등 이단들도 세대교체가 진행 중이다. ‘참 가정’을 표방하는 통일교의 세대교체는 부모와 자식, 자식과 자식들 간의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자식이 어머니를 ‘사탄의 핏줄’이라고 하고, 자식들도 서로를 격렬하게 비난하고 있다. 참 가정도, 참 부모도, 참 자녀도 없는 명분 없는 재산과 권력 다툼만 노출되고 있다.

신천지는 설립자 이만희의 후계자로 김남희를 지명했다. 그들 주장대로 이만희가 영생불사한다면 후계자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결국 이만희 사후를 대비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단들의 세대교체는 교주의 사후를 대비한 보험 차원의 사전 포석이며, 교주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신도들의 혼란과 이탈을 막기 위한 사전 통제장치 마련에 지나지 않는다. 이단들

의 세대교체 성공이 어려운 만큼 조직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통일교 문선명의 부인 한학자와 아들들 문현진, 문국진, 문형진의 권력투쟁도 진행 중이다. 신천지 내부에서도 영향력 있는 지파장들이 분리·독립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주요 이단 세대교체의 혼란기가 한국 교회 이단 대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2. 여성후계자

이단들에게 여성시대가 열렸다. 주요 이단들의 후계자 대부분이 여성들이다. 통일교 한학자, 기독교복음선교회(JMS)의 정조은, 하나님의교회 장길자, 신천지 김남희, 중국 이단인 전능하신하나님교회(동방번개) 양상빈 등 여성 교주 혹은 후계자들을 세우고, 6천년 만에 태어난 재림 주 독생녀, 어머니 하나님, 이긴 자의 영적 배필, 재림 그리스도 등으로 신격화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에서 그것도 가장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영역에서 여성 지도력이 급부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여성들의 권위가 부상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관계가 있다. 이단들의 생존전략상 시대 트렌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둘째, 남성을 후계자로 정할 경우 현재 지도자를 배신할 우려가 있고, 후계자를 꾸꾸는 여러 남성 2인자들 사이의 분란으로 조직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김백문, 문선명, 박태선으로 시작된 한국 이단 교리의 성(sexuality)적 특징과 관계가 있다. 한국 이단들은 교리적으로 음양의 결합을 온전함의 상징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간과해선 안 될 점은 이단들의 여성 후계자 배후에 전권을 쥐 실세 남성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여성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뒤에서는 그 남성 중심으로 조직이 가동된다. 통일교 한학자의 측근들, 하나님의교회 총회장 김주철 등을 비롯해 카리스마적인 창교자의 뒤를 잇는 여성 후계자 뒤에는 남성 중심의 조직이 도사리고 있다.

3. 이미지 세탁 위한 ‘사회봉사’

또 다른 트렌드는 사회봉사다. 최근 성장하고 있는 이단들은 앞 다퉈 사회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하나님의교회는 대통령상 수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신천지는 낙후지역 벽화 그리기와 이주민 지원 등의 봉사 활동에 힘쓰고 있다. 다른 이단들도 국내외 봉사 활동을 전면에 내걸고 활동 중이다. 이러한 트렌드는 현재 한국 교회의 모습과 무관하지 않다.

‘사회봉사에 헌신적인 이단’과 ‘개교회주의에 집착하는 교회’ 중에 일반인들이 어디를 선호할까? 사회적으로 순기능을 하며 표창장을 받은 이단과 사회적 역기능을 노출하며 비판의 대상으로 떠오른 교회 중에서 어디를 선호할까? 사회의 동의와 공감을 결여한 이단 규정은 마녀사냥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교회는 고심하며 이단과 정통을 분별하는데 한국 사회는 이러한 이단 논쟁을 교회의 밥그릇 싸움 정도로 보고 외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 성장하고 있는 이단들은 소수의 기독교인들에게 교리적인 인정을 받는 것보다 다수의 비기독교인들에게 사회적인 공신력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그들의 핵심적인 교리는 변함없이 유지하면서 효과적인 포교와 성장을 위해 친사회적인 이미지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과거 이단들은 가정을 파괴하거나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했던 부정적인 이미지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오히려 이단들이 가정의 가치를 옹호하거나 친사회적인 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그들의 목표는 변함이 없다. 자신들의 교주가 다스리는 이단 왕국을 세우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양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 노략질하는 이리들(마 7:15), 곧 거짓 선지자들이 주님의 순결한 교회를 넘보고 있다.

4. 교세확장 위한 이단들의 ‘세계화’

한류 바람은 이단들의 세계화 성공에도 일조

하고 있다. 한국 교회가 교파 간, 교회 간 경쟁으로 인한 비효율적 선교를 진행하는 동안 이단들은 조직력과 경제력을 앞세워 오지를 효과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이단 대처가 결여된 선교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됐다.

신천지가 해외 교민 사회에까지 침투하고 있다. 해외에 있는 친인척과 지인들에 관한 정보를 신도들로부터 수집해서 그들만의 모략 포교, 즉 거짓말 포교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교회와 기쁜소식선교회 국제청소년연합(IYF)은 현지인들을 미혹하고 있다. 하나님의교회는 국내에 방문한 외국인들과 자원봉사 활동을 매개로 관계를 형성한 다음 현지 침투를 시도하고 있다. 국내 차원의 이단 대처를 넘어서 해외진출을 시도하는 이단들을 예방하고 대처할 ‘글로벌 이단 대처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한 때다.

한국인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영문 자료들의 제작 및 배포가 필요하고, 현지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초교파 조직이 구성돼야 효과적으로 이단들을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표적은 다음 세대 ... 반드시 지켜야 한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가 특히 더 위험하다. 이단들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미혹하기 위해 온갖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단사이버 단체들이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미혹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이단들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미혹해서 그들이 사회인이 되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도록 밋을 씌운다. 어디라고 할 것 없이 모든 이단들이 예외 없이 어린이와 청소년, 대학생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공간이 더 위험하다. 사이버 공간마다 이단들이 깔아 놓은 미혹의 밋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요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에 매우 익숙해져 있다. 디지털 세상에서 성장한 세대들이 스마트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교육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사이버 공간에 건전한 교육공간만 있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경계해야 할 이단 로고

정명석
(국제크리스찬연합)
2002년 제27회 총회에서 "성경해석, 교회, 삼위일체,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론"에 나타난 문제들로 인해 "반기독교적 이단"으로 규정됨.

신천지
(이만희, 무로성경신학원)
1995년 제20회 총회에서 "계시론, 신론, 기독교론, 종말론"에 나타난 문제들로 인해 "이단"으로 규정됨.

다락방전도운동
(류광수)
1999년 제21회 총회에서 "마귀론, 기성교회 부정적 비판, 다락방식 영성"에 나타난 문제들로 인해 "사이비성"으로 규정됨.

하나님의교회
(안상홍증인회)
2002년 제27회 총회에서 "교리적 탈선, 성경해석의 오류, 왜곡된 구원론"과 2011년 제28회 총회에서 "안상홍과 장길자 신권화문제, 안식일과 율월일 주장"에 나타난 문제들로 인해 "반기독교적 이단"으로 규정됨.

안식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1995년 제20회 총회에서 "구원론, 안식일, 계시론, 영혼영접, 영원지옥부재" 등에 나타난 문제들로 인해 "이단"으로 규정됨.

통일교
(문선명,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1971년 제56회 총회에서 "정통적인 신학사상과는 극단적으로 다름"으로 "사이비종교"로 규정되고 이후에 58회에 걸쳐 추가결의가 있었음.

지방교회
(윌트니스 리)
1991년 제76회 총회에서 "신론, 기독교론, 인간론, 교회론"에 나타난 문제들로 인해 "이단"으로 규정됨.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 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
* 지교회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자료입니다. * 본 포스터는 교회 내에만 게시할 수 있습니다.

▲ 통합측 총회가 배포한 이단경계 포스터. 주요 이단집단의 이름과 로고 등이 들어있다.

아니라는 점이다. 불건전한 콘텐츠들과 이단들이 설치해 놓은 미혹의 덫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신천지와 하나님의교회에서 제작한 셀 수 없이 많은 동영상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헤엄치고 있다.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한 포교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수준 높은 음악, 동영상, 만화들과 함께 이단 교주들의 주장을 게시해 놓았다. 처음에는 온라인 공간에서 시작해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가며 교세를 확장하고 있다.

이단들의 온라인 포교는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잘못된 교리를 전달할 수 있다. 성인들도 이해하기 힘든 교리적 설명보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단교육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

이단의 포교방식 알리고 대처법 교육

월간 <현대종교>가 2014년 실시한 '고등학교 이단 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교회와 주변 어른들을 통해서(응답자의 90.3%) 이단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결과는 교회와 가정에서 이뤄지는 이단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교회에서는 설교, 성경공부, 광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단 경계를 강조하고,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단들의 포교 방법을 알려주고 대처방법을 교육한다면 청소년들이 이단에 미혹되는 것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 교회 주보에 게재하는 이단 예방 한

줄 광고의 위력도 생각보다 효과적이다.

또한 대학 새내기들은 이단들의 집중 미혹 대상이다. 한국 교회의 고등부 사역자들이 대학 새내기들이 영적으로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예를 들어 이단 동아리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문자, 이메일, 전화 등으로 최소 1년 동안은 심방을 해줘야 한다. 이러한 영적 애프터서비스만으로도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효과적으로 지켜낼 수 있다.

다음 세대는 한국 교회의 미래이자 소망이다. 그들을 지켜내지 못하면 한국 교회의 미래도 없다.

디지털시대와 이단

최근 이단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한 포교에도 집중하고 있다. 주목 받고 있는 이단들은 예외 없이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들만의 광범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밖에서는 포교활동을 하고, 안에서는 내부 통제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연령, 장소, 대상에 제한 없이 무방비로 이단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디지털 세상에서 이단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목표물을 찾아오고 있다. 교회 차원의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 홈페이지 등의 네트워크에 이단 예방교육 자료 게시와 공유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여러 교회들이 문제가 되는 이단들에 대한 동영상 교육 자료들을 홈페이지에 게

시하는 것만으로도 이단의 교회 침투를 막는 경고가 될 수 있다.

둘째, 교회 언론은 지속적으로 이단 관련 기사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게시해야 한다. 동시에 자체적인 기사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최근 이단들의 동향을 성도들에게 수시로 알려서 이단들로부터 받는 피해를 예방하고, 경계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한국 교회가 이단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후원해야 한다. 이단 피해자들과 가족들만큼 이단 대처에 적극적인 사람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단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이단 정죄는 마녀사냥과 다르지 않다. 효과적인 이단 대처를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관련 정보의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터넷 검색보다 교회가 소속된 교단에서 제공하는 이단 관련 정보나 <현대종교>(www.hdjongkyo.co.kr)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정보 검색과 상담이 필요하다. 이단 문제는 신앙과 교리 문제를 넘어 실정법의 문제이다.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이단 비판은 명예훼손 논란에 쉽게 휘말릴 수 있다.

이단을 비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일이다. 이단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분별의 기준이 되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한다. 단순히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성경을 보는 올바른 눈을 가져야 한

다. 각 교회의 형편에 맞는 성경 및 교리 교육도 강화되어야 한다.

이단 대처와 교회 개혁은 동전의 양면이다. 교회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끊임 없이 개혁되고(reformed), 개혁하기를(reforming) 멈췄을 때 안팎의 도전에 직면한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지 못할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고, 이단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도 없다. 항상 새로워지는 교회가 가장 힘 있는 이단 대처 방안이다.

이단들은 초대교회부터 거짓말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분열시켜 왔다. 거짓 형제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헛된 우상의 종으로 삼으려는 미혹을 멈추지 않았다(갈 2:4).

이단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지만 참된 교회는 단 한 차례도 패배한 적이 없다. 기독교 역사가 이를 증언하고 있다. 이단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건강한 교회 밖에 없다. 오직 교회만이 이단의 본질을 간파하고, 이단피해를 예방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다. 교회는 영원하며, 그 교회는 세상과 이단을 반드시 이긴다.

진화하는 이단 대처법

1. 가정과 교회에서 이단 대처법 교육
2. 관심과 심방으로 대학 새나기를 지켜라
3. 교회 홈페이지에 이단 예방교육 자료 게시 및 공유
4. 교회 언론은 지속적으로 이단 관련 기사 보도
5. 이단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SNS 관심 갖고 후원하기
6. 공신력 있는 기관 통한 이단 정보 검색 및 상담하기

“한 알의 밀알이 되게 해주소서”

페르시아어예배 12년 만에 다시 드린다

온누리교회 페르시아어예배가 재탄생했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드리다 중단되었던 온누리교회 페르시아어예배를 12년 만에 다시 드리게 됐다. 페르시아어예배는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나라(이란,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성도들을 위한 예배공동체다. 고국과 가족으로부터의 핍박을 견디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보석 같은 사람들을 위한 신앙공동체다. 페르시아어예배 구성원들은 고국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알의 밀알이 되게 해달라며 오늘도 눈물 흘리며 부르짖고 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 페르시아어예배 지체들이 예배 후 이천만광장에서 교제하고 있다.



▲ 우렁찬 목소리로 페르시아어 찬양을 부르는 지체들.

“머 빠르젠데 우임(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난 2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관 5층 온누리M미션 사무실 다락방에서 우렁찬 찬양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찬양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있었다.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은 페르시아어예배 성도들이다.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온 성도 15명이 열정을 다해 예배드리고 있다. 그들의 예배를 보는 것 자체가 감격이요, 감동이다.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연상케 한다.

페르시아어예배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에서 드렸었다. 1999년 한 형제가 이란에서 이란 출신 이주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온누리교회에 온 것이 그 시초다. 2000년부터는 이란 출신 박씨마 전도사가 합세했다. 한국인 남편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된 박 전도사가 페르시아어예배 통역을 책임졌다. 그런데 2005년 통역을 맡았던 박씨마 전도사가 신학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가게 되면서 온누리교회 페르시아어예배가 중단됐다. 그 대신 고 하용조 목사의 허락을 받아 페르시아어예배를 서울에 있는 한국이란인교회로 파송했다.

온누리교회 페르시아어예배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된 것은 올해 4월부터다. 한국에 돌아온 박씨마 전도사 가정과 예배드릴 곳이 마땅치 않았던 이주민 세 가정이 모여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예배처소에 대한 갈망이 커졌다. 한국에 있는 이란인교회를 찾아갈지 아니면 온누리교회에 도움을 요청할 것인지 등 몇 가지 대안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다. 약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나서 7명이 제비를 뽑았는데 6명에게서 온누리교회에 도움을 요청하자고 나왔다. 박씨마 전도사는 곧장 서빙고 온누리교회를 찾아가 노규석 목사

(온누리M미션)를 만났다.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더니 흔쾌히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올해 6월부터 온누리교회 페르시아어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다. 온누리교회 페르시아어예배가 파송된 지 12년 만에 친정으로 돌아왔다.

페르시아어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관 5층 온누리M미션 사무실 다락방에서 드리고 있다.

페르시아어예배의 비전은 딱 하나다. 페르시아권에 있는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마지막 날에 이 민족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렘 49:39)”이라는 약속을 굳게 믿고 있다. 중동에 붙어 다친 한류열풍을 활용해서 한국에 유학 온 청년들을 전도하는 사역도 계획하고 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복음 전하기 위하여

페르시아어예배공동체에는 눈물겨운 사연을 가진 지체들이 많다. 고국과 가족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이들도 있다. 메흐르드다드 헤이 다리와 압사네 카라미 부부도 그렇다. 그들 부부는 난민으로 인정을 받아 한국에서 살고 있다. 남편 메흐르드다드 헤이 다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 이란에서 기독교 서적을 읽고 예수님을 알게 됐고 구주로 영접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해 깊이 알 수는 없었다.

“이란에는 성경책이 거의 없어요. 엄격한 검열 때문에 성경책 보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사정이 그렇다보니 성경 말씀을 풀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은 한국에 온 다음이었다. 2013년 사업차 한국에 온 그는 영어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 무렵 독일의 한 교

회에서 페르시아어로 예배를 드리는 영상을 보고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을 느꼈다. 영상을 보는 내내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때마침 할렐루야교회에서 페르시아어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는데 오래가지 못했다. 올해 4월 페르시아어예배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갈 곳을 잃은 그가 다시 예배의 기쁨을 꿈꾸고 회복한 곳이 바로 온누리교회 페르시아어예배다.

“온누리교회에서 페르시아어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아주 큰 기쁨이에요.”

이제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다. 가족전도를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이 바로 그의 또 다른 꿈이다. 그의 아내 압사네 카라미도 성경 말씀을 깨닫고 가족전도에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아내의 남동생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다른 가족들도 예수와 교회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아름다운 사례는 비단 압사네 카라미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페르시아어예배 구성원들의 가족들에게 복음이 확산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아민 형제는 이란에서 우연히 위성방송을 보게 됐다. 그 방송은 예수와 관련된 영화였는데 그것을 보고나서 큰 충격을 받았다.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가장 충격적이었다.

“그 영화를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친척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척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더라고요.”

그 친척의 인도로 지하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가 한국에 오기 일주일 전 위기가 닥쳤다. 그가 다니던 지하교회가 발각됐

다. 성도들은 잡혀가거나 도망쳤다. 그는 다행히 한국으로 오면서 위기 상황에서 모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게 되었다. 정부관원들이 이란에 있는 그의 집에 들이닥쳤기 때문이다. 엄청난 위기였지만 그 위기는 그가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지금은 회사동료의 인도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모국어로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말씀이 이해되는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찬양을 할 때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느껴져요. 이제는 페르시아어예배 찬양팀을 꾸리고 싶어요.”

매주 뜨겁게 예배드리고 있는 페르시아어예배 지체들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다.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페르시아어예배 구성원들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함께 기도해주면 좋겠다.

문의: 010-8505-0191

페르시아란?

‘페르시아’ 명칭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란 남서부 해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파르스(Fars)라고 부른데서 비롯되었다. 이것이 라틴어화(化)되어 페르시아(Persia)로 변화되었다. 고대에 존재했던 방대한 제국 페르시아의 중심은 지금 이란이라고 부르는 지역이다.

페르시아는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서쪽으로는 그리스까지 세력을 뻗었다. 바빌로니아 제국을 멸망시켰고, 이스라엘 땅이 포함된 영토까지 차지했었다. 자연스럽게 바빌론에 살던 유대인들도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당시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왕이 고레스(BC 559~530) 왕이다. 고레스 왕은 바빌론에 억류된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인물이다. 이 이야기는 구약의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나온다.

여성들이 들으면 참 좋을 스쿨

워킹마리아, 성경암송편, 성경적 가족상담 등 신설

여성사역에서 여성들이 들으면 참 좋을 스쿨을 내놔다. 직장인 여성을 위한 ‘워킹마리아’, ‘성경암송편’, ‘성경적 가족상담’, ‘성경일독과 함께하는 수요일예배’ 까지 참으로 풍성하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올 가을, 말씀과 기도로 물들어 가는 여성들을 위한 여성사역 신설 스쿨을 소개한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서빙고 성경일독학교에서 여성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누고 있다.

직장인 김미은 성도는 여성사역에서 올해 상반기에 첫 선을 보인 ‘워킹마리아 북클럽’에 참석하면서 큰 힘을 얻었다. 그녀는 A기업에서 25년 동안이나 직장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올해 초 어려운 일이 생기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었다. 신앙생활도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 홀로 예배만 드리던 터라 더욱 외로웠다. 그런 그녀에게 직장인 여성들을 위한 워킹마리아 개강소식은 한줄기 빛과 같았다. 워킹마리아 북클럽에서 경험한 감정은 평안이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

“서로 상황이 비슷해서인지 공감대가 형성되더라고요. 그만큼 나눔도 깊어지다 보니까 더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었다.

“오디오로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읽는데 저도 모르게 빠져들더라고요. 탕자이야기

첫째 아들에게서 저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제 모습이 보이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직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도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될지 조금씩 가늠이 되고요.”

워킹마리아는 직장인 여성들을 위한 스쿨이다. 직장생활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직장인 여성들을 위한 맞춤 양육 프로그램이 절실했다. 지난해 개최한 ‘일터와 영성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직장인 여성들의 뜨거운 반응도 워킹마리아 신설에 한몫했다.

워킹마리아는 직장인 여성들이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오후 6시 이후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서빙고는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203호, 부천은 오후 7시 부천 온누리교회 믿음홀에서 진행된다. 직장인 여성들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나눔으로 위로를 얻고, 영육을 재충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다. 과제도 없다. 부담 없이 몸만 오면 된다.

직장인 여성 위한 양육 프로그램

직장인 여성들을 위한 워킹마리아 양육 프로그램이 알차게 준비되어 있다. 서빙고 여성사역에서는 ‘바이블클럽’, ‘큐티베이직’, ‘북클럽’을 부천 여성사역에서는 ‘오디오북클럽’을 진행한다. ‘바이블클럽’은 성경을 더욱 깊이 배우고 나누는 소그룹 성경공부모임이다. 이번에는 모세오경을 공부한다. 혼자 읽는 것이 부담되고 어려운 직장인 여성들이 대상이다. 9월 19일부터 매주 화요일에 진행한다.

‘큐티베이직’은 Q.T의 기초를 배우는 소그룹 모임이다. 말씀 묵상과 소그룹 나눔을 통해 영성 훈련을 하는 방식이다. 삶에서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하는 직장인 여성들에게 추천한다. 9월 21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진행한다.

‘북클럽’은 오디오로 책을 읽는 소그룹 모임이다. 신앙서적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도 발견하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빙고에서는 팀켈리의 〈기도〉, 〈탕부 하나님〉 반이 각각 개설된다. 팀켈리의 〈기도〉는 9월 20일부터 매주 수요일, 팀켈리의 〈탕부 하나님〉은 9월 22일부터 매주 금요일에 진행한다. 부천에서는 ‘오디오북클럽-팀켈리의 〈탕부 하나님〉’ 반이 10월 12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진행된다. 모두 8주 과정이다.

부천과 대전에서는 직장에 다니지 않는 여성을 위한 ‘오디오북클럽’도 첫 선을 보인다.

시간대는 오전이다. 부천은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오전10시 20분 부천 온누리교회 비전홀, 대전은 9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대전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진행한다. 부천은 팀켈리의 〈탕부 하나님〉, 대전은 피터스카지로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여성〉을 교재로 한다.

새롭게 선보이는 스쿨

새롭게 선보이는 스쿨도 있다. ‘성경암송편’ ‘성경적 가족상담’, ‘성경일독과 함께하는 수요일예배’가 바로 그것이다. 서빙고 여성사역에서 선보이는 성경암송편은 묵상한 말씀을 나누고 암송하는 스쿨이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으로 가족과 이웃을 전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이다. 9월 21일부터 8주 동안 매주 목요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양재 여성사역에서 선보이는 성경적 가족상담은 가족 회복에 초점을 맞춘 스쿨이다. 자기 자신과 가족을 돌아보고, 성경적으로 건강한 가족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9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진행된다.

강동 여성사역은 말씀에 예배를 더한 ‘성경일독과 함께하는 수요일예배’를 선보인다. 예배드리면서 성경일독도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9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강동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캠퍼스	스쿨	개강일(요일)	문의
서빙고	워킹마리아 바이블클럽	9월 19일(화)	김남정 사역자 02-3215-3667
	워킹마리아 큐티베이직	9월 21일(목)	
	워킹마리아 북클럽-〈기도〉	9월 20일(수)	
	워킹마리아 북클럽-〈탕부 하나님〉	9월 22일(금)	
	성경일독학교-성경암송편	9월 21일(목)	
양재	좋은 어머니스쿨-성경적 가족상담	9월 15일(금)	02-570-7277
부천	워킹마리아 오디오북클럽	10월 12일(목)	032-322-9686
대전	오디오북클럽	9월 19일(화)	010-4432-9338
강동	성경일독과 함께하는 수요일예배	9월 6일~12월13일(수)	02-475-9686

사역칼럼



조호영 목사
(여성사역본부장)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여성사역에는 많은 다양한 사역들이 있다. 그중 여성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참여도가 높은 사역 중에 하나가 ‘성경일독학교’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서 성경 전체의 이해를 돕는다. 성경일독학교는 많은 여성들의 참여로 빨리 마감된다. 성경일독학교를 진행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다. 말씀을 단순히 배우고, 몇 번 읽은 만족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이끌어

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말씀을 외우면 이웃에게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영적 무기가 될 수 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시 119:105).

이것이 가을학기에 성경일독학교 ‘성경암송편’을 시작하는 이유다. 한 학기동안 70주절을 암송한다. 사실 환갑을 넘긴 나도 무엇을 암송한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담대히 암송을 시작해보려고 한다. 돌에 새겨진 글씨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말이다. 점점 눈이 희미해지는 나이가 되었지만 이제는 마음에 말씀을 새

긴다는 마음으로 암송학교를 시작하려 한다. 단 한 구절이라도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질 때 그것이 나의 삶의 에너지가 되고, 이웃에게 진리를 전하는 영적 무기가 될 것을 믿는다.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프로그램도 있다. 직장여성들을 위한 소그룹 모임 ‘워킹마리아’다. 그동안 낮에 진행되는 여성사역의 모든 프로그램은 주중 프로그램이었다. 직장인 여성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낮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 힘든 직장생활로 영육이 많이 지쳐있는데도 말이다. 이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저녁여성사역의 문도 열리게 되었다.

올해 6월 여성기도부흥운동 ‘마리아행진’때부터 직장인 여성들에 대한 마음이 더 커졌

다. 마리아행진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직장여성들을 만나고, 그들을 향한 축복의 찬양을 부를 때 그들의 눈에 고이는 뜨거운 눈물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누구보다 위로와 격려, 공감대가 필요한 여성들이었다. 직장생활로 힘들고 지친 많은 여성들에게 영육 간에 힘이 되어 줄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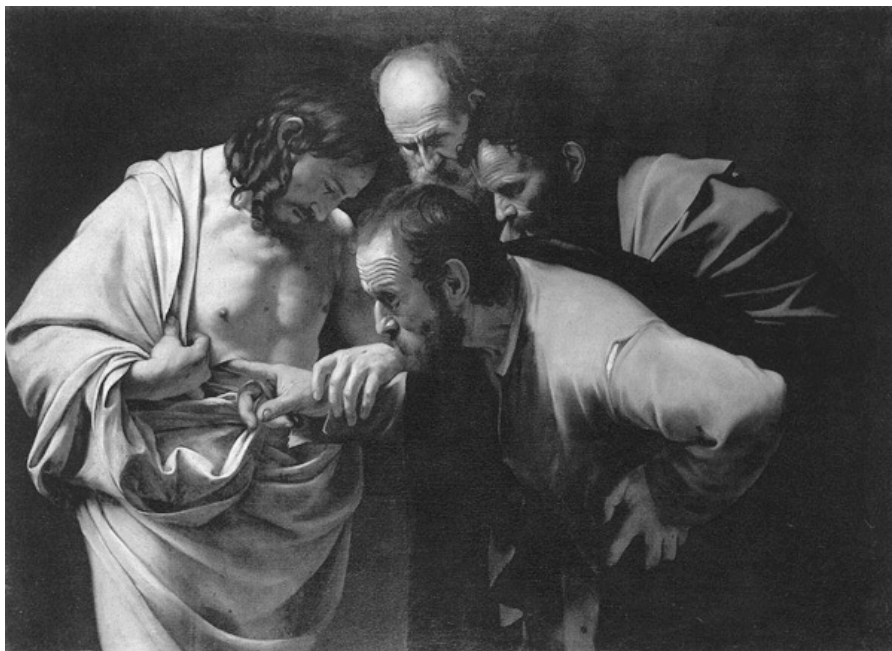
가을학기 ‘워킹마리아’를 다시 개설한다. 워킹마리아의 특징은 어떤 숙제도 없다는 것이다. 이번 가을학기 ‘워킹마리아’에 많은 직장여성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여성이 변하면 자녀와 남편, 세상이 변한다고 믿는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시대에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거룩한 신부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여성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최정주 권사의 말씀이 들리는 ‘예술 산책’

카라바조는 바로크를 시작한 이탈리아의 천재적인 화가이다. 그는 연극무대와 같이 어두운 배경에서 주인공에게만 강렬한 빛을 비추어 극적인 긴장감을 주는 기법을 작품에 처음으로 사용했다. 빛의 화가로 불리는 렘브란트와 같은 바로크의 화가들도 이 기법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카라바조는 17세기 유럽 회화의 선구자로 높이 평가되고 있지만 그에게는 어두운 면이 있었다. 그는 평소에 매우 폭력적이었고 늘 칼을 허리춤에 차고 다녔다. 결국 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 다니다 객사했다.

그의 그림 ‘의심하는 도마’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이 그림 속의 장면은 성경에서 아주 익숙한 부분이다. ‘의심 많은 도마’라고 설교에서도 매우 많이 인용된다. 이 그림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상처에 직접 손가락을 넣어보는 너무나도 사실적인 도마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다. 강렬한 빛이 오른쪽 위에서 상처 입은 예수의 몸 위로 내리쬐고 있다. 상처에 손을 넣는 도마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표정은 아픔을 참는 듯하고, 이를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세 제자의 표정은 너무나도 진지하다. 그림 속 제자들의 모습은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을 의심하는 관람자들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며,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등장인물로서가 아니라 관람자의 모습에 불과한 내 모습이기도 하다. 도마의 표정은 좀 더 현실적이다. 조심스럽지만 매우 진지하게 예수님의 상처에 접근한다. 마치 예수님의 상처를 후벼 파는 것 같기도 하다. 그림이 아니라 동영상을 보는 듯 드라마틱하고 생생한 현장감이 느껴진다.

이런 느낌을 위해 카라바조는 몇 가지 장치를 사용했다. 첫째, 배경은 어둡고 조명은 드라



카라바조의 ‘의심하는 도마’ (1602년).

마틱해서 관람자의 모든 시선이 등장인물에게 쏠리게 한다. 둘째, 성서적 상상의 장면을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것과 같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셋째, 그림 속의 인물들을 앞으로 바짝 당겨서 배치하여 관람자로 하여금 긴장감을 느끼고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가도록 하였다. 그림을 보면 볼수록 카라바조의 치밀하고 천재적인 능력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긴장감이 감도는 장면에 비발디의 ‘사계’ 중에서 여름 3악장을 들어보면 어떨까? 이탈리아 바로크의 대표적 화가가 카라바조라면 대표적 음악가는 비발디라고 할 수 있겠다. ‘사계’는 비발디가 1725년에 작곡한 4곡으로 구성된 바이올린 협주곡이다. 바로크 협주곡 중에 가장 유명한 곡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사

랑을 받는 음악이기도 하다. 그중 여름 3악장은 다른 곡들에 비하여 바이올린 선율과 현악기의 협주가 매우 긴박하게 진행된다. 불안하고 쫓기는 것 같은 분위기로 시작되는 이 곡은 그림 속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갈등하는 심정을 표현하는 것 같다. 시작부에서 연주되는 긴박한 바이올린과 현악합주의 어우러짐이 어느 정도 소강상태에 이르면 바이올린 선율로 이어지는데, 이 바이올린 소리는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요 20:25)고 하는 도마의 떨리는 외침처럼 느껴진다.

바이올린과 현악합주의 씬 없이 이어지는 연주하는 그림 속의 계속되는 긴장감과 딱 맞지 않

는가? 손을 넣은 도마와 그를 바라보는 주님,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퍼지는 현악기의 울림이 내 맘속으로 깊숙이 파고든다.

성경 속 도마는 나와 많이 다르다. 경험과 이성을 소중히 하는 도마보다는 감정이 앞서고 솔직한 베드로가 나와 같다. 예수님의 상처에 손까지 넣어 보면서 부활한 예수님을 확인해 보려는 도마가 사실 잘 이해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는 순간 갑자기 도마의 마음이 전율처럼 전달되었다. 주님은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요 20:27)고 말씀하셨고, 도마는 의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기 위해서 손을 넣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싶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았다. 그리고 확신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요 20:28). 도마는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했다. 결국 멀리 인도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진다.

나는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심조차 하지 않는 사람 아니었던가? 의문도 없이 무엇이든 받아들이고 결론 내린 탓에 믿음의 기초가 흔들린 적도 있지 않았는가? 너무 평이한 믿음은 작은 시련에도 흔들린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확실히 선포하려면 피 흐르는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대고 물어야 한다. “제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 맞죠?”



최정주 권사(한국예술융합교육학회 회장)

차세대에게 들려주는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오늘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일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교회 주일예배에서 드린 대표기도문이에요. 안식일과 주일이 한 기도문에 나란히 등장할 정도로 우리는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을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먼저 안식일(安息日, the Sabbath)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식일은 히브리 주간의 일곱 번째 되는 날로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를 말해요. 성경에 기록된 안식일의 첫 기록은 창세기 2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창 2:2).

안식일의 1차적 의미는 하나님이 모든 창조사역을 마치시고 휴식하시며 복되게 하신 날이에요. ‘쉼’의 날인 안식일은 십계명에서 기억하고 지켜야 할 날(출 20:8)로 의미가 구체화되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상당히 중요한 날로 지키고 있어요.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 오전은 유대인 여자들에게 특별히 바쁜 시간이에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집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으로 금요일 오전을 보내고 슈퍼에 가서 장을 봐야 해요. 안식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먹는 ‘할라(Hallah)’.

일에는 어떤 상점도 문을 열지 않기 때문이에요. 금요일 오전 슈퍼마켓은 일주일 중에 가장 붐비는 날이에요. 오후에는 안식일 저녁 만찬을 준비하느라 바쁘고, 남자들이 회당에 입고 갈 세탁된 옷을 준비하기도 해요. 남자들이 회당을 다녀오면 안식일 저녁 식사 시간에 온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아서 순수한 밀가루로 만든 ‘할라’ 빵을 포도주와 곁들여 만찬을 나누며 창세기 2장 1-3절을 읽어요.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출애굽기에 모세의 명령을 기억하며 세 번 식사를 한대요. 그 이유는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출 16:25)는 말씀에 ‘오늘’이라는 말이 세 번 사용되었기 때문이래요. 다른 날과 구별된 거룩한 날(신 5:12)이고 쉼과 기쁨의 날(사 58:13)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구별해서 철저히 지켰어요.

안식일과 주일이 어떻게 다르죠? ①

안식일에는 곡식도 베지 않았어요. 성전에 서는 안식일마다 1년 되고 흠 없는 숫양 둘과 고운 가루 에바 십 분의 이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렸어요(민 28:9).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새로 드렸고(레 24:8), 성전에서 시중 드는 제사장들은 안식일마다 교대하였어요(왕하 11:5-9). 안식일을 범하면 신성모독으로 판단하여 사형에 처하였으며(출 31:14), 돌을 던져 죽였어요(민 15:32). 만약 잘 모르거나 실수로 안식일을 범하였다면 속죄제(sin-offering)를 드려 면제를 받았어요. 이처럼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가장 무거운 신성모독에 해당하였어요. 또한 안식일은 ‘만나’와도 관련이 있어요. 안식일 전날에 유대인들은 만나를 하루치 더 모아야 했는데 그 이유는 안식일에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안식일에 소비할 만나를 미리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개인과의 언약의 관계를 나타냈어요(출 31:13). 그러므로 안식일은 ‘쉼’과 ‘언약의 관계’를 포함해요.



광상학 목사(강동 온누리교회)

병동에서 온 편지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91세 어르신 병상에서 세례 받은 사연

복음 전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가 하나도 없는데 실제로 전도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을 것만 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미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원하지 않든지 말이다. 혼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동역자가 존재한다. 병원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정숙 목사가 이를 증명하는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 이범석 성도가 세례를 받고 있다.



▲ 가족과 봉사자들이 이범석 성도를 축복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 전파다. 내 안에 있는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춰내야 할 사명이 바울 사도가 외친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는 복음이다. 그런데 이 세상의 우상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알고고도 하지 않게 한다. 오늘날처럼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심한 때가 또 있었을까. 성도들이 삶으로 전해야 할 복음을 입으로만 전하는 현실도 한몫하고 있다.

많은 성도들이 “나는 은사가 없다”, “전도해도 잘 안 된다”면서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그런데 전도는 그리 어렵지 않다. 예수님이 남기신 “혈땀을 때에 옷을 입혔거나,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거나, 욕에 갇혔을 때에 와서 위로해 준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마 25:36, 40)이라는 말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작은 실천이 복음 전파라는 사실을 안다면 쉬워진다.

내가 사역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 기독교실에는 주변 교회 성도님들이 봉사자로 함께 동역하고 있다. 병동을 돌면서 환우와 가족들을 위로하고, 기도하고, 상담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봉사자들처럼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작은 사랑을 실천 한다면 그것 또한 복음 전하는 일이고 그들 또한 복음전도자이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여러 사람이 동역하기 마련이다. 오늘은 성도들의 연합으로 세례를 받으신 어르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염치없는 일이라서...”

이 어르신은 91세로 뇌경색으로 입원하셨다. 봉사자들이 남긴 메모를 보고 복음을 전하러 병실에 방문했다. 나이도 있으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셔서 염려가 많았는데 눈도 귀도 밝으셨다. 이 어르신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이해하셨다. 두 번째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다. 영접기도를 분명하고 자신 있게 따라 하셨다. 그날 이후 만날 때마다 복음에 대해서 한 가지씩 설명해 드리면 고개를 끄덕이시며 잘 받아들이셨다. 큰따님 말에 의하면 동네복지관에서 사귀 친구가 교회 장로라 복음에 대해 알고 있었고 설교도 들은 적 있다고 했다. 복지관에서의 만남이 이 어르신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았다.

큰따님께 거동이 불편해서 교회까지 갈 수 없으니 병상에서라도 꼭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온누리교회 세례교육 지침서를 가지고 어르신께 세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 고마워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 하셨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다가 이제야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고 천당 간다면 면목이 없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염치없는 일이라서...”

이 말을 듣고 나는 웃으면서 “타인에게 손해

를 끼치거나 신세를 지면 꼭 갚아 드리는 삶을 사셨죠?”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아~ 그럼요. 그렇게 살았지요”라고 대답하셨다. 나는 덧붙여 이렇게 말씀드렸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는 서로 부담을 갖게 되는 일이 있지만 사람과 하나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 받아주시고, 맞아주시고, 함께해 주신답니다. 그래서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 장로나 권사로 살았던 사람, 임종 직전에 예수님 믿은 사람 모두가 똑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셔서 남은 생이 복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마치고 다시 세례를 권유하자 어르신께서 그러자고 하셨다.

연합과 전도 그리고 구원

어르신의 세례식을 수요일로 정했다가 그날은 믿지 않는 아들이 아버지를 간병하는 날이라 금요일로 변경했다. 금요일 봉사자들과 함께 기독교실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기독교실에서 봉사자들과 함께 세례식을 준비하고 어르신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사람이 많아 놀라실까 염려 했는데 어르신은 봉사자들을 밝은 표정으로 반겨 주셨다. 이미 봉사자들의 얼굴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찬양으로 세례를 준비하는데 어르신이 작은

소리로 함께 부르셨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을 읽고 “이제 성도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선포했다. 그리고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라고 물었다.

“아멘!”

자신 있게 대답하셨다. 어르신의 얼굴에서는 긍정적인 믿음이 넘쳐나고 있었다. 세례증서를 가슴에 꼭 안고 병실로 가셨다. 휠체어를 밀고 가는 큰따님에게도 기쁨이 넘쳤다. 세례식에 함께 했던 봉사자들의 마음에도 감사와 감격이 흘러넘치고 있는데 병실에 아버지를 모셔다 드린 큰따님이 다시 기독교실에 찾아 오셨다.

“아버지가 세례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라고 하시면서 주신 것입니다.”

“아니 이 어르신 헌금도 아시네”라며 봉사자들이 웃음을 터트리자 큰따님의 간증이 시작 되었다. 평소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 긴 시간을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이렇게 병상에서 변화될 줄 몰랐단다. 언젠가 아버지께서 기독교 장례예배를 참석 하시고 “내가 맞다. 장례식 가보니 다른 종교는 다 헛것이다. 그들의 의식을 보니 교회가 맞으니 너나 잘 믿어라. 이 나이에 나는 괜찮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그리고 나서 뇌경색으로 아버지가 병상에 누우셨다.

다니던 교회에 아버지가 병상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리자 성도들이 “꼭 세례 받게 해라”, “우리가 기도로 돕겠다”며 용기를 줬다고 했다. 기도하고 노력한 가족들, 방문해서 위로해 주고 기도해준 봉사자들, 큰딸에게 용기를 주고 기도한 성도들, 복지센터에서 사귀 장로 친구의 연합으로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 영광의 빛을 한 영혼에게 발산해 주셨다.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큰따님이 아버지가 병상에서 예수님 영접했던 일을 스마트폰으로 녹음해서 성도들에게 들려 주자 모두가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며 감동받았다고 했다. 나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스마트폰 시대, 내 말이 녹음 되고, 내 행동이 녹화되기 때문이다. 좋지 않은 일도 녹음되고 고발이 오고 가는 시대가 아닌가. 그래도 복음 전하는 일이 녹화 되어서 다행이다. 다음에는 더 신중히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홀로 미소를 지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린다.



작년 Harvest에서 이주민들이 즐겁게 찬양하고 있다.

추석연합집회 'Harvest 2017' 봉사자 모집

10월 5~7일 Acts29 비전빌리지, 이주민 650명 참석

온누리M미션이 주최하는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 'Harvest 2017' 봉사자를 모집한다. 예배 지원, 영상편집, 사진촬영, 통역, 주방, 간식, 안내접수, 어린이사역, 활동프로그램, 셔틀운행, 의료지원 등을 도와줄 봉사자 100명이 필요하다.

Harvest는 명절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외국인 이주민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행사다. 올해는 'Raise up'을 주제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진행된다. 네팔, 몽골, 아랍, 우즈베키스탄 등지에서 온 이주민 650여 명이 참

석한다. 전주비전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과 NGO 더멋진세상이 후원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문의: 010-8827-2769

후원: 하나은행 573-810031-7460
5(온누리교회온누리미션)

온누리 선교 오리엔테이션(OMO) 개최

2000선교가 선교사를 준비하는 성도를 위한 '온누리 선교 오리엔테이션(Onnuri Mission Orientation)'을 개최된다. 10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콘서트홀에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가 되는 과정을 알려주고, 온누리 선교 리더십과의 상담이 이뤄진다.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다음 이메일(anam73@onnuri.org)로 보내면 된다. 문의: 02-3215-3216

9월 17일은 '일대일데이'

암송대회, 시상식, 사진촬영 등 기념행사

9월 17일은 '일대일데이'다. 이를 기념하는 풍성한 행사가 개최된다.

서빙고 온누리교회는 1부 예배 후에 이천만 광장에서 암송대회가 열린다. 일대일사역자가 추천한 'BEST 양육자'와 '최다 양육 참여자' 시상도 한다. 양재 온누리교회는 오전 10시 30분부터 드림홀에서 공로자 수상, 케이크 커팅식, 양육자와 동반자 기념촬영 등이 진행된다. 부천 온누리교회는 2층 로비에서 우수양육자 시상식을 하고, 수원 온누리교회는 1층 로비에서 양육자와 동반자가 함께하는 암송대회와 일대일 제자양육 교재 표지에 있는 '키그림 맞추기' 대회를 한다. 강동 온누리교회는 1부와 2부 예배 전후에 12층 로비에서 양육자와 동반자 기념촬영, 양육자반 조별 사진촬영을 하고, 동반자 과정을 신청한 성도에게는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양지 온누리교회는 Acts29 비전빌리지 1층에서 일대일 성구를 암송하면 선물을 주고, 일대일 양육 희망자를 신청 받는다.

한편, 제1회 일대일 제자양육 심포지엄이 오는 9월 23일 오후 2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개최된다. 일대일사역의 의미와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한편, 제1회 일대일 제자양육 심포지엄이 오는 9월 23일 오후 2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개최된다. 일대일사역의 의미와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여성사역 특별부흥집회 '다시 복음으로'

900명 참석 ... "회복되게 해 달라"고 부르짖어

서빙고 여성사역이 지난 6일 특별부흥집회 '다시 복음으로'를 개최했다. 서빙고 본당에서 막 오른 이날 특별부흥집회에는 900명이 참석해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게 해 달라"고 뜨겁게 부르짖었다.

이번 특별부흥집회에서는 김용의 선교사(순화선교단 대표)가 '복음의

능력'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김 선교사는 "우리가 십자가 복음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 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지영 성도(서빙고공동체)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 번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했고, 박예선 성도(성동광진공동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것을 다짐했다"고 고백했다.

이날 오후에는 여성리더십훈련이 이어졌다. 여성사역 리더십, JDS, 권사회 300명이 참석했다.

청소년·부모 성장학교 'Power Impact' 개강

건강한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청소년과 부모들이 꼭 들어야 하는 강좌가 열린다. 회복사역 본부가 주관하는 청소년·부모 성장학교 'Power Impact'가 그것이다. 10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도곡교육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이나 전화로 하면 된다. 회비는 청소년 13만원, 부모

1명 참석하면 7만원, 부부가 함께 참석하면 10만원이다.

청소년·부모 성장학교 'Power Impact'는 지난해 신설됐다.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청소년들에게는 건강한 정체성을 수립하도록 돕고, 부모에게는 청소년 시기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준다. 문의: 010-2435-7109

오늘(10일), 창조과학스쿨 개강

창조과학스쿨이 개강했다. 오늘(9월 10일)부터 10월 22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 서빙고 CGNTV 홍보관에서 진행된다.

말씀에 기초한 창조론적 가치관을 확립하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창조과학스쿨 참가신청은 9월 17일(주일)까지 현장에서 받는다. 회비는 3

만 원이다.

창조과학스쿨에서는 '창조신앙으로의 초대', '진화의 허구', '생명의 신비', '설계vs우연', '지층과 화석', '노아 홍수 콘서트', '인체의 신비', '으뜸 창조물 공룡', '지구와 우주', '창조와 복음'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3869-7785

부천, 예스비전통독 수강생 모집

부천 온누리교회에서 '예스비전통독' 수강생을 모집한다. 9월 16일부터 12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부천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진행된다. 삶에서 예수님을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가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

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

9월 16일(토) 오전 7시에는 부천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예스비전통독 특강'이 실시된다. 강의를 <비전통독>의 저자 조상연 목사가 한다.

문의: 010-3387-2941

안심(顔心)메이크업 수료식 및 스타일링쇼

여성 노인의 우울성향 감소시키는 프로그램



안심메이크업 프로그램에서 배운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을 뽐내고 있는 어르신들.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기관 시립 용산노인종합복지관이 지난 7일(목) '안심(顔心)메이크업' 프로그램 수료식 및 스타일링쇼를 개최했다.

'안심(顔心)메이크업'은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링, 네일아트 등 미용기술을 배우고 익히면서 여성 노인의 우울성향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에는 안심메이크업 과정을 수료한 어르신 34명과 가족 및 지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이성희 관장 인사, 활동 영상 시

청, 어르신 런웨이, 수료증 전달, 시상식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런웨이 코너가 큰 호응을 얻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수료자들이 그동안 프로그램에서 배운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링을 뽐내며 무대를 장식했다. 베스트 메이크업상, 헤어상, 포즈상, new life상(프로그램 참여 전·후 변화가 큰 어르신에게 주는 상) 시상도 했다.

안심메이크업 프로그램은 삼성카드와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되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제1163호 | 2017년 9월 10일(주일)

■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 수료 간증



/ 전현숙 사모(주님의 가족교회)

나는 대학원에서 가족상담을 전공하고 '마음놀이터'라는 심리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관계에 지치고, 상처받고, 분노하는 내담자들을 만나다보면 내 안에 감춰져있던 상처가 떠오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도 상담을 받으러 가곤 한다. 내가 다듬어진 만큼 다른 사람을 객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편과 함께 참석한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도 그런 시간이었다. 남편과 나의 관계 속에 감춰져 있던 쓴 뿌리를 발견하고 치유를 경험했다. 나는 네 아이의 엄마, 사랑하는 남편의 아내, 사역자로서의 역할,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전한 나로서의 모습을 잘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런데 나를 쓰러트리는 쓴 뿌리의 씨앗이 있었다. 사춘기를 겪고 있었을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받은 아픔이 그것이다. 이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편하지만은 않았다. 그때마다 나를 격려하시고 손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에 참석하면서 남편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을 걷어내게 되어 감사하다. 그 덕분에 부부사이가 한결 편안해졌다. 무엇보다 사단의 참소를 분별하고, 우리 부부가 한 팀이 되어 문제를 해

상처와 놀자

결했던 경험이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에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이다. 배운 것을 삶에서 기쁨으로 실천하며 성장하기를 기도한다.

세상에서 가장 두렵지만 반드시 해야 하고 벽찬 감동을 주는 놀이가 있다. 바로 상처를 인지하고, 탐색하고, 직면하고, 제거하고, 수용하고, 성장하는 '상처와 놀자'이다. 많은 부부들이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이라는 넓은 운동장에서 이 놀이를 마음껏 해보기를 권유한다. 웃고, 울고, 쓰리고, 놀라고, 감동하고, 이해하는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기를 바란다.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애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나아갈 때 어느덧 든든한 한 팀이 되어 있을 것이다.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에서 나는 최강의조를 만났다. 막내였던 우리가 받은 사랑이 참 크다. 섬기기 위해 멀리서부터 오시고 잘 이끌어주시는 코치님 부부, 따뜻한 미소로 격려해주시는 조원들께 감사드린다. 내 사랑 콩깍지 성정민 목사님이 나의 남편이어서 정말 감사하다. 남편과 내가 한 팀인 것이 자랑스럽다.

아름다운 동행 172기 개강
날짜: 9월 16일~11월 18일 매주 토요일
문의: 010-3744-3060

■ 헬로맘스쿨 수료 간증



/ 이보람 성도

걱정과 염려가 감사와 기쁨으로

지난해 5월 결혼했고 7월에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뚜렷한 자녀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아기가 생기는 것을 피하지 않기로 했었다. 그런데 결혼 2달 만에 임신 4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당황스러웠다. 엄마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고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이었다. 남편과 나는 세상적인 걱정과 염려보다 일찍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했다. 고된 끝에 아기의 태명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루체, Luce)라는 뜻을 가진 '하루'라고 지었다.

임신을 하고 일을 다니는 것이 어려워졌다. 임신초기부터 입덧이 심해서 제대로 먹지 못했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것도 힘들었다. 병원에서 하고 있었던 연구원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혼자 집에 있게 되었다. 일을 하러 나가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점점 혼자만의 시간이 외롭게 느껴졌다. 마음이 힘들어져서 친정집을 자주 방문했다. 그런데 매일 외출 없이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조금씩 답답하게 느껴졌다. 태교와 임신, 출산 준비에 대해 더 알고 싶었지만 알 길이 없었다. 그러던 중에 대학청년부 길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 했던 언니와 오빠를 통해 헬로맘

스쿨을 알게 되었다.

헬로맘스쿨에서 같은 임신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찬양하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임신과 출산에 대해 나눌 사람이 없어서 외로웠기에 더욱 그랬다.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성격적인 태교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어서 유익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해 막연하게 기도했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깨닫게 되었다.

헬로맘스쿨을 통해 얻은 것이 많아서 좋다. 서로 중보기도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고, 걱정과 염려가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너무 좋다. 내가 행복해진 것은 물론이고 나와 함께 하고 있는 하루도 행복해진 것 같아 감사하다. 앞으로 하루에게 좋은 것만 전해줄 수 있도록 행복한 임신기간을 보낼 것을 다짐한다. 무엇보다 우리 가정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배 속에 있는 하루와 건강하게 만날 수 있기를, 출산 후에도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기도한다.

헬로맘 임신 출산후 스쿨 개강
날짜: 9월 22일~11월 3일 매주 금요일
문의: 010-2786-6221

■ 기고



/ 이광현(교육제작국)

CGNTV의 여름은 참 특별했다

아직도 환하게 웃는 그분들의 얼굴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CGNTV의 여름은 참 특별했다. 모두가 자신을 위해 여행을 떠나는데 CGNTV 직원들은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었다.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다니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곧 의문이 풀려졌다. 아웃리치 현장에서 만난 선교사, 목회자, 성도들이 왜 CGNTV 직원들이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경험하는지를 확실하게 알려줬다. 올해도 CGNTV는 해외 선교사님께 안테나를 달아드리고, 국내에서는 미디어 아카데미와 고향교회를 섬겼다.

나는 미디어 아카데미를 섬겼다. '보다 나은 교회를 만들기 위한 도전'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지역 교회들에게 CGNTV가 가진 달란트를 나눴다. 대구가 고향인 나는 청년부 시절 가정용 캠코더를 들고 교회와 청년부 홍보영상을 만들겠다고 고군분투 했었다. 그때 누구라도 좋으니 영상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주길 원했는데 아무도 없었다. 정말 답답했었다. 20년이 지난 지금 내가 대구에 있는 교회, 목회자, 성도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아카데미

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그렇게 원했던 미디어에 대한 갈급함이 참석자들의 표정에서 읽어질 때 정말 감사했다.

고향교회 섬김에도 참여했다. 힘든 상황에 있는 농촌교회를 찾아가 목사님을 위로하고, 성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역이다. 올해는 전라북도 진안에 위치한 배넉실교회를 찾았다. 그곳에서 해바라기밭 사역, 미용사역, 안마사역, 마을잔치, 예배 등으로 섬겼다. 고맙다며 인사하는 목사님의 모습에서 작년 하늘나라로 가신 아버지가 생각났다. 아버지는 경상북도 청도의 시골마을에서 목회를 하셨다. 아버지에게도 이런 섬김이 필요하셨으리라. 혼자 짊어진 사역의 무게 속에 한 번쯤은 이렇게 웃으실 일이 필요하셨으리라.

CGNTV의 여름사역은 어쩌면 나를 위한 일인지도 모른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섬기기 위해 간 곳에서 내가 감동받고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했다. 함께 간 직원들과 하나 됨도 느낄 수 있었다. 어쩌면 이 사역들이 CGNTV를 든든히 세워가는 큰 기둥이라는 생각이 든다.

■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 간증



/ 방주 어린이(서빙고 꿈땅)

아빠, 사랑해요

나는 아빠와 함께 4월 16일부터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빠와 함께 일대일 제자양육 공부하는 것이 싫었다. 매일 큐티 하고, 엄마랑 동생들과 성경일독하고, 말씀 암송도 하는데 또 말씀을 외워야 한다고 생각하니 싫은 마음이 컸다. 게다가 저녁에 한다는 것도 부담이 돼서 더 하기 싫었다. 저녁에 하면 활동하기 귀찮기 때문이다. 그래도 주일 저녁마다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 공부를 하게 되었다.

어떤 때는 밤 11~12시까지 했다. 또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하고 시간이 늦어 아예 못할 때도 있었지만 아빠와 나는 조금씩 꾸준히 해나갔다. 조금씩 하다 보니 재미있었다. 점점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갈수록 흥미롭고 기뻐졌다. 궁금한 것들도 있었다. 그때마다 아빠는 최선을 다해 설명해 주시고 찾아주셨다. 나에게 무엇인가를 많이 주시고 싶은 모습이었다. 아빠와 함께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면서 가끔씩은 '친구들과 함께 하면 재미있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었다.

어느 날, 아빠가 동생들과 함께 놀이터에 갔

을 때였다. 놀이터에 학교 친구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아빠가 그 친구들을 전도하셨다고 했다. 그 친구들이 의외로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아빠가 더욱 멋지고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아빠처럼 나도 친구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고 싶어졌다.

처음에는 말씀 암송하기가 귀찮고 싫었다. 그런데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 공부를 하면서 말씀 암송이 재미있어졌다. 귀찮고 싫었던 마음들은 사탄이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말씀암송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힘이 나는 것 같다. 1과부터 12과까지 공부하면서 빌립보서 4장 6~7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가장 은혜롭고 좋았다.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목사님들과 집사님들께 감사하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 많은 이야기 해주신 아빠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빠 사랑해요.

복지칼럼

또 한 번의 기회



이옥자 소장
(군포하나로청소년쉼터)

위기 및 가출청소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학교를 자퇴하거나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제 위기 청소년들을 개인과 가정의 감당하기가 힘들다. 지역사회와 정부를 넘어 교회가 위기 청소년들에게 빛과 희망이 되어야 할 때이다.

군포하나로청소년쉼터(이하 하나로청소년쉼터)는 ‘이웃과 하나로’라는 기독교적 마인드와 ‘따뜻한 삶, 미래를 위한 꿈, 내일을 준비하는 배움!’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된 아동청소년들을 돌보고 있다. 청소년쉼터, 학교 밖 및 학교 부적응청소년들을 위한 하나로꿈학교, 방과 후 돌봄 지역아동센터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소외된 청소년들을 섬기며 사회선교를 펼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보호, 상담, 복지, 교육 등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들이 자아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삶의 목적을 찾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그 목적이다.

외국 속담에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한 아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사회안전망이 필수다. 위기 아동청소년들이 자립할 때까지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위기 및 가출청소년은 가정의 위기 등으로 온전한 돌봄과 양육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도 하다. 특히 가출청소년들은 가정과 학

교, 지역사회를 떠나게 되면서 그들 대부분이 성장 기반을 잃어버리고 결과적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마치 식물이 땅을 떠나서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듯이 청소년들도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를 떠나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통합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에게 성장기반을 지원해 줌으로써 잃어버렸던 교육기회를 되찾고,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노출된 학교 밖 청소년들과 사각지대의 청소년들을 위해 가까운 이웃이 친구가 되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과 관심을 통해 이웃과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의 사회안전망이 되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위기 및 가출청소년들은 가정에서의 폭력과 학대 등으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들을 잃어버렸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들이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 주고, 살아갈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Second Chance)를 제공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쉼터의 기도가 돌이켜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상처와 아픔이 사랑으로 치유되기를 소망한다. 쉼터에 오는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알기를 꿈꾼다. 봉사자와 선생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한 마음을 품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청소년들에게 영향력 있는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란다. 재건축을 통하여 하나로청소년쉼터가 청소년 자립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 주는 기관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권사칼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이명화 권사
(예수제자학교 서빙고 주간반)

예수제자학교(JDS)가 생긴 것은 1999년이다. 서빙고 주간반이 가장 먼저 시작됐다. 이어서 서빙고 저녁반, 양재 주간반, 저녁반이 생겼고, 수원, 부천, 인천, 남양주 등 캠퍼스에서 예수제자학교가 오픈하게 되었다.

그동안 많은 성도들이 예수제자학교를 거쳐 가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나 역시 그랬다. 상반기에 4개월 동안 진행되는 교육과 20번의 팀모임으로 준비하는 아웃리치는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감동을 선물해 준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깨닫게 해주고 내가 밟은 땅을 품고 기도하도록 해준다.

예수제자학교는 故 하용조 목사님께서 하와이 YWAM 코나 열방대학에서 겪은 경험을 교회에 접목시켜 시작하게 되었다. 예수제자학교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을 양육해 가는 과정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약 7개월 동안의 과정을 수료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되었다. 더 나아가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참된 제자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게 되었다.

나 또한 예수제자학교에서 처음으로 터키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내가 경험한 이슬람권에서의 선교는 철저한 감시 속에서 이루어졌다. 문화라는 옷을 입고 치열한 영적싸움을 했던 것이 기억난다. 시장과 주택가를 돌면서 팽배기를 하다가 어느 이슬람가정에 초대되기도 했다. 그 후부터 사복경찰이 우리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우여곡절 끝에 선교사님을 만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예수제자학교는 매해 여름 각 스쿨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웃리치를 떠난다. 영적으로 척박한 땅을 밟아야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지를 피부로 절실히 느끼게 된다.

올해 예수제자학교에서는 서빙고, 양재 주간반과 저녁반, 수원 저녁반 5개 학교 간사님들이 동경 러브소나타에 다녀왔다. 5,000명을 수용하는 동경국제포럼이 일본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들이 어떤 이유로 그곳에 왔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된 것은 분명하다. 그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했다.

“지금은 극히 적은 수의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앞으로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과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일본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을 통해 복음이 더욱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예수제자학교의 여름 아웃리치는 매우 뜻 깊었다. 예수제자학교뿐만 아니라 일본을 품은 온누리교회가 직접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느끼고 돌아왔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예수제자학교와 여름 아웃리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만큼 예수제자학교에서 여름 아웃리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웃리치는 매년 떠나는 행사가 아니다. 우리를 제자답게 살게 하는 원동력이며 활력소이다.

나를 온누리교회로 인도해주시고 예수제자학교에서 훈련받고 섬기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예수제자학교 덕분에 이 땅에서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났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하시고,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

신앙에세이



박성천 목사
(주차사역팀 담당)

네팔 고레다라 마을은 수년전 지진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 지금은 NGO 더멋진세상의 도움으로 80여 채의 집이 세워졌다. 마을 사람들은 따뜻한 보금자리와 함께 복음의 씨앗을 얻었다.

지난달 7일 서빙고 주차사역팀이 네팔 고레다라 마을을 방문했다. 집집마다 장판을 깔아주러 갔다. 마을 주민들이 맨바닥에서 지내는 불편을 개선해 주고 싶었다. 2000선교본부와 주차사역을 맡고 있는 조성수 집사님을 중심으로 모두 한마음

으로 선교에 동참했다. 선교를 위한 기도와 후원도 이어졌다.

네팔 고레다라 마을은 이틀에 걸쳐 이동해야 갈 수 있는 오지다. 그렇게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매일 저녁 모여 늦은 밤까지 찬양하는 현지 어린이들의 모습이 천국 같았다.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의 선물을 한가득 얻고 온 것 같았다.

주차사역팀은 매주가 아웃리치다. 그만큼 주차봉사와 안내를 하는 일이 힘겹게 느껴질 때가 많다. 체감온도 40도가 넘는 더위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강추위와 싸워야 할 때도 있고, 폭우가 쏟아지면 그 비를 오롯이 맞아야 한다. 폭설이 쏟아지면 눈을 치워야 주차안내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칭찬 받기는커녕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보니 불평과 욕설을 듣기

일쭉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사역팀원들은 주차봉사를 사명이라 생각하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들과 함께한 네팔 아웃리치는 정말 뜻 깊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저 감사할 뿐이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 이끄시는 곳을 바라보면서 낭비와 소비가 아니라 채움을 경험했다. 선교는 성공과 인정이 아니라 섬김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그야말로 행복한 고생이었다.

주차사역팀에서 헌신하셨던 이정웅 집사님과 정영열 장로님은 직접 선교지로 떠나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 주차사역팀에서의 훈련이 밑거름 되어 예수님의 섬김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것 같았다.

주차사역팀의 수고와 땀이 고맙고, 미안하고, 귀하게 여겨질 뿐이다. 매주 행복한 고생길에서서 빨간 주차봉을 흔드는 그들의 손길과 검게 그을린 얼굴이 잊히지 않는다. 새벽부터 밤까지 굳건히 그 자리에서 서 있는 그들의 걸음이 행복한 고생이며 선교사적인 삶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차봉사에 임할 것이다.

가을에는 국내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삶으로 실천하고자 한다. 평택의 한 작은 교회에 전기와 음향시설을 정비해주고, 방송, 도배, 미용, 마을 어르신 섬김도 할 계획이다. 우리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으로도 시선을 돌려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힘을 것이다. 주차사역팀의 아웃리치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행복한 고생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살아있는 소망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시험이 큰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역설입니다. 어떻게 근심이 큰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표면에는 근심거리가 늘 몰아닥치지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는 기쁨의 파도가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캄캄한 밤에 더욱 반짝이는 별을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딛는 반짝이는 별을 볼 수 없습니다. 근심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 살아있는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을지라도 도리어 더욱 믿고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로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8~9절).

사실 베드로는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흠어진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는 이 성도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교제한 적도 없고,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자기 자신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자요, 기적을 본 자요,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시험이 왔을 때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성령을 받기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과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고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새 생명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은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어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새 생명이 살아있는 소망이 됩니다. 살아있는 소망은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은 물리적으로 함께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도 살아있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면 예수님과의 연합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기뻐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근심과 시험거리가 있 다할지라도 큰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살아갑니다. 믿고 사랑하고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그분을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순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자

[illegible]

서빙고

0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시간: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송현정(010-9166-8015)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분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Onnuri hall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Peace 302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2

몽골어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1

네팔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3

열방 예배 09:00/11:00 안산M센터 Manna hall

태국 예배 14:00 안산M센터 Peace 303

스리랑카 예배 11:30 안산M센터 Peace 304

베트남 예배 11:00 안산M센터 Peace 305

필리핀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1

다문화예배 10:30 안산M센터 Dream Kids Room

다문화 꿈방 11:00 안산M센터 StarTree

다문화파워웨이브 14:00 안산M센터 StarTree

서빙고

몽골어 예배 14:00 선교관 401호

러시아 예배 14:00 선교관 301호

네팔 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 예배 14:00 본관 B102호

매일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방예배 15:00 선교관 403호

페르시아어예배 13:30 본관5층 미션다락방

인연 몽골어 예배 13:00 프리스페이스3층

중국어 예배 11:3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화성M센터 우즈베크 모임

14:00

김포M센터 캄보디아 예배 11:00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 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 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 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정혜경(010-8562-213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 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 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 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승우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 주 수요일 오후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 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 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 월 셋째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개강: 9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서빙고: 신관 4층 누리홀

양재: 본관 지하 3층 JDS홀

일산: 일산공동체 비전센터(일산호수병원 4층)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묘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치)

동산위치: (제)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기): 80기

문의: 02-3215-3178-9

주일7부예배 콰이어모집

시간: 매 주 주일 오후 7:30~10:30

장소: 본당

문의: 이승윤 목사(010-2701-5309)

목요선교집회 싱어모집

시간: 매 주 목요일 오후 5:30~9:15

장소: 비전홀

문의: 이승윤 목사(010-2701-5309)

CMN마노아팀 의료사역

장소: 파주 엠리교회

일시: 9월 17일 12:00 서빙고 출발

사역: 아프리카 난민 대상 의료, 전도, 사진,

진료지원

모집: 의료인 및 비의료인

문의: 이대현 팀장(010-3387-7764)

안산 온누리M센터 베트남 예배 차

량 기부 요청

모집: 주일 서틀 차량(9인승 이상)

문의: 이억식 총무(010-3708-7926)

두란노서원 바이블칼리지 채용 공고

모집: 바이블칼리지 세미나 사역간사

자격: 목회학 석사, 성경관련 학위자

마감: 9월 11일(월)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양재

02. 570. 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 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 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 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 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 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 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 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 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 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최문환 팀장(010-5157-2009)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 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108-838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 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 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살롱기도회

대상: 나라와 통일과 평화를 위해 기

도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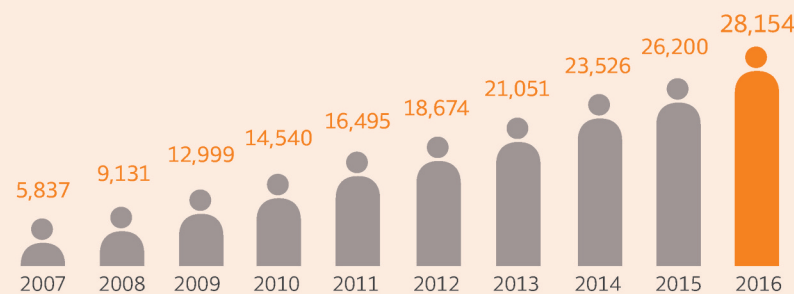
CGNTV 후원자님과 함께한 10년의 열매

후원자님의 손길로 24시간 365일, 8만7천600시간 동안 쉼 없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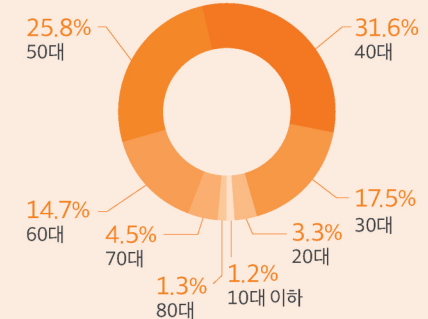


현재 정기후원자
28,000여명
10년 후원자
2,597명

지난 10년을 함께한 동역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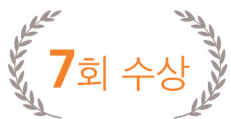
다양한 세대의 동참



세상과 소통하는 기독교문화콘텐츠로 다음 세대, 넌크리스천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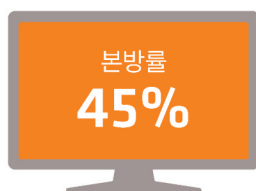
1위
2017년 IPTV 종교방송 및
기독교방송 시청률



7회 수상
지난 5년
국내외 주요 콘텐츠 어워즈



연간제작편수
5,716편



본방률
45%

페이스북



총 구독자수
약 14만 명



총 조회수
약 4천 1백만 회

유튜브 (21개 채널)



총 구독자수
약 16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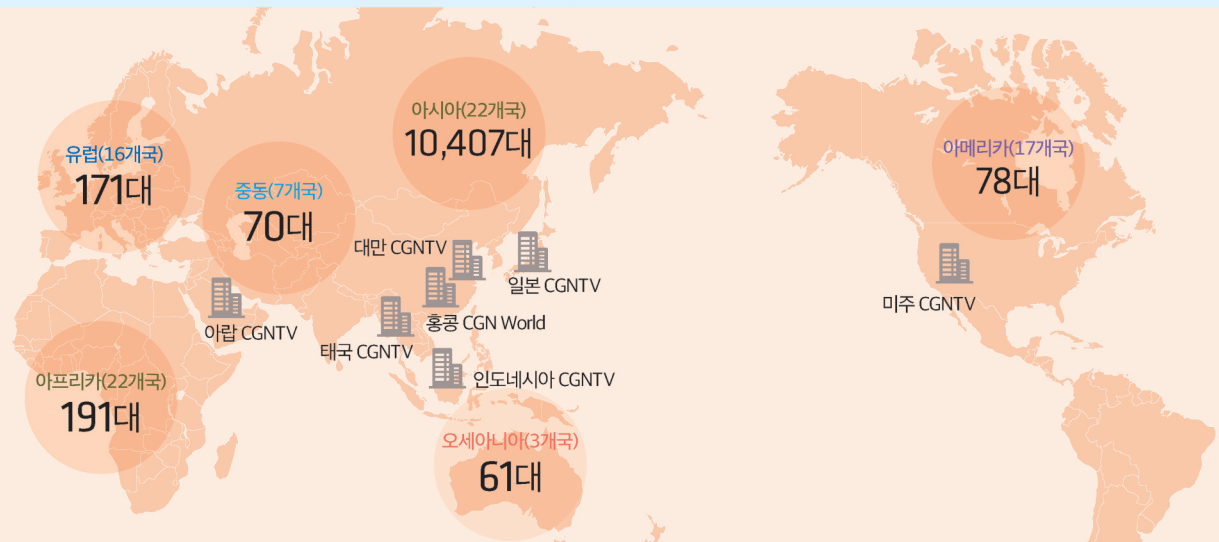
총 조회수
약 9천 7백만 회

7개의 해외 지사와 1만 대가 넘는 안테나를 통해 선교지에 하나님의 꿈을 심었습니다.

드림온 안테나 설치대수
(2017년 7월 기준)

10,978대
87개국

해외지사 3개국
제작센터 4개국



**‘한 영혼을 섬기는
CGNTV의 5만 후원자가
되어 주세요’**

왜 5만명의 후원자가
함께 해야 하나요?

1 순수복음방송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어
공유할 수 있습니다.



2 한국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한
맞춤 콘텐츠 제작으로 청소년,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3 다양한 방송 플랫폼과 신기술을
도입해 국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방송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9월 17일, 가족과 함께 CGNTV 미디어선교에 동참해 주세요

CGNTV 정기후원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문의 02-796-2243